

# 입양경험에 관한 연구

임 경 미(인하대 석사) · 양 성 은(인하대 부교수)

본 연구는 친생자가 있으면서도 입양을 해서 아동을 양육하는 어머니들의 경험을 현상학적으로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준거적 선택방법에 따라 친생자가 있는 입양가족 중 입양 당시 아동의 연령이 0~12개월 이내이고 자료수집 당시 만 6세 이상 된 입양아를 양육하는 어머니 15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평균연령은 만 48세이고, 입양아의 입양 당시 평균연령은 만 4개월, 입양아의 현재 평균연령은 만 8세였다. 자료수집을 위해 개별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면접 내용은 입양과정, 입양으로 인한 부부관계 및 형제자매관계의 변화, 입양가족의 어려움과 대처법, 정부와 사회에 대한 입양과 관련된 요구 등으로 구성되었다. 자료분석은 Colaizzi(1978)가 제시한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6단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절차의 타당화 검증을 위해 동료집단의 조언 및 지지, 예외적 사례분석, 감사자료 남기기, 반성적 일지쓰기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결과의 중심주제는 “입양을 하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기쁨과 함께 어려움도 있지만, 신뢰와 노력을 통해 극복해나가며 사랑으로 가족이 융화된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연구참여자들의 입양 동기는 아동중심적인 것으로서, 요보호아동에게 부모의 사랑과 가족을 경험하게 해주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문제, 친생자 양육에 대한 부담, 주변 사람들의 반대로 인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단을 거쳐 입양을 하게 된다. 둘째, 연구참여자들은 입양 과정에서 입양수수료에 대한 부담, 입양아와 생모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 유자녀 가족의 입양에 대해 부정적인 기관의 태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입양 초기에 불안해하는 입양아와 애착형성을 위해 전념하는데, 이 과정에 입양선택에 대한 책임감이 주요 요소로 작용한다. 애착이 안정되면서 입양아는 친생자와 동일하며, 입양아에 대한 차별성을 인식하지 않는 단계로 발전된다. 또한 남편의 양육참여가 적극적이 되면서 부부관계도 강화되고, 친생자와 입양아 간에 친밀한 형제애가 생긴다. 입양에 대해 반대하던 확대가족들도 적응 과정을 거치면서 격려와 지지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가족관계의 긍정적 변화는 재입양에 대한 재고를 가능하게 한다. 넷째, 연구참여자들은 입양아를 양육하는 어려움으로서 열악한 태내환경으로 인한 입양아의 장애 가능성, 생모를 찾고 싶어 하는 입양아에 대한 서글픔, 입양아의 사춘기 정체성 혼란, 또래관계에서의 상처, 입양공개상황에서의 난처함, 입양성공에 대한 부담감 등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입양아에 대한 신뢰, 가족의 결속력, 입양가족모임의 지지 등이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언급하였다. 다섯째, 연구참여자들은 바람직한 입양문화 정착을 위한 입양 절차의 개선, 반편견교육 의무화, 친권상실법 및 출생신고법 개정, 입양가족지원의 확대, 미혼모와 입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변화 등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본 연구가 입양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예비 입양가족을 위한 의미 있는 자료를 제공하며, 입양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국내 입양의 활성화에 공헌할 수 있을 것이다.